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학교 스포츠센터 부실 운영, 무리한 '최고가 입찰제'가 원인"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내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의 운영 중단 사태와 최고가 입찰제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학교에서 사용수익자가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포츠센터 42개소가 있으며, 현재 10개소가 운영중단 상태이고 특히 동대문구 전곡초등학교 스포츠센터의 경우 무리한 최고가 입찰 경쟁과 그에 따른 부실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빚발치고 있다. 전곡초 스포츠센터의 경우, 2024년 선정된 업체가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인 1억 4천만 원의 4배 넘는 5억 9,700만 원(낙찰가율 424%)에 낙찰받았다. 남궁 의원은 "수익 구조상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임에도 낙찰을 목적으로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짚었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계약 첫째 사용료를 선납하는 규정에 따라 초기에는 운영을 이어갔으나, 1년이

지나 매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2년 차 시점부터 미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남궁 의원은 "업체의 운영 부실은 사용료 미납을 넘어 각종 공공요금 체납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고스란히 학교 행정의 부담과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사용료 감면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태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업체의 미납금액은 사용료 5억 7천만 원과 수도요금 8천만원으로 총 6억 5천만 원에 달하며, 특히 학교와 수영장의 수도요금이 분리지 않아, 학교가 수도요금을 대납한 실정이다. 또한, 업체가 발행한 회원권의 환불 문제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한도액이

전체 피해 규모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으로 많아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남궁 의원은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였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부실 운영의 반복을 막기 위해 최고가 입찰이 아닌 '종합평가 방식'의 도입과 자치구과 교육청 간의 '협력 운영 방식'을 제시하였다. 정근식 교육감은 종합평가 방식의 경우,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남궁 의원은 "전곡초 스포츠센터 사례는 학교 행정의 부담을 넘어 주민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결함의 결과"라며, "교육청은 개별 학교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 방식과 사후 관리 체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장성 기자

양우식 운영위원장,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건의 등 지방의회 공동 대응 제도 개선 이끌어야"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하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자치 기반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의 현장방문지인 경남 한산도 제승당을 찾아 충무사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충무공의 정신으로 거릿 산동과 가짜뉴스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남기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과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현재 체계적인 교육·연수 시스템과 조직 기준이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자치 기반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의 현장방문지인 경남 한산도 제승당을 찾아 충무사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충무공의 정신으로 거릿 산동과 가짜뉴스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남기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송민수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희 의장, "학교급식 안정성 확보, 국가 책임 강화 필요"



대전시의회 조원희 의장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군산시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 3건의 보고에 이어 ▲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 ▲ 시·도의회 선거구 확정주제 불확실성과 확정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독립적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를 대표해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중심으로 학생의 건강권

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는 핵심 교육 인프라"라며, "국가가 책임을 갖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추후 서면심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이채봉 기자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별위원회, 국회서 기자회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폐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욱, 이하 '크린넷 특위')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제화 및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김현욱 위원장을 비롯해 김중식, 안신일, 이현정 의원 및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크린넷 특위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주민 편의 및 도시 미관 개선에는 기

여했으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방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법적, 재정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크린넷 특위는 ▲정부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규격화, 설치기준, 운영방식 등 법제화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지하시설물 경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재해 발생 요소 제거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현욱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유지, 관리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 또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채봉 기자

신동원 의원, '서울판 색동원' 발본색원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2월 25일(수)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성범죄와 각종 비리로 얼룩진 한 사회복지시설이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감사청구를 제기한 작금의 사태를 고발하며 서울시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해당 용산구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 입소자를 강제추행하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유

용한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법인대표는 직급수당을 부당수급했으며, 시설은 이를 알린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고 하는 등 심각한 비위를 저질렀다. 신 의원은 "당초 용산구가 '개선명령'이라는 면죄부를 주려 했고 서울시가 이를 수수방관하는 안일함을 보였다"며, "그 결과 범죄 시설이 도리어 시설 폐쇄에 반발하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감사원에 서울시와 용산구를 공익감사 청구하는 기막힌 상황이 초래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장이 입소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단 한번의 위반이라도 시설을 폐쇄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원칙 없는 관용은 자비가 아니라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임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성 기자

계양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새해 첫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건의안 2건,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제264회 임시회는 2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에는 각 상임위

원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자료 수집 활동을 실시하고, 26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27일부터 3월 9일까지는 각 소관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1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신정숙 의장은 "31년 만에 이전 신축된 새로운 의회 청사에서 2026년 첫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올 한해도 우리 의회는 현장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구민의 삶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로 뛰고 소통하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